Entertainment p/18

소녀시대 일본 투어 피날레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제307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류현진 전반기 10승⋯ 새역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구름’ 취업시장⋯ ‘희망 길’ 찾아라

인맥·포트폴리오 관리 상시·사내 추천 노려볼 만
열린 채용 脫스펙 내세⋯ 적성파악·도전자세 필요

"위기일수록 기회는 더 많아진다. 인맥·포트폴리오를 철저히 관리하고 상시·사내추천 채용을 노려라."

갈수록 어두워지는 취업시장 전망으로 신음하는 구직자들을 향해 국내 3대 취업포털 대표들이 이같은 조언을 쏟아냈다.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럴 때 일수록 취업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나만의 무기'를 점검하면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 있다고 대표들은 입을 모았다.

◆하반기 채용 상반기보다 30%↓

14일 취업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40만~45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상반기 60만 명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취업포털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하반기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 조사가 나왔으나 올해는 조사에 들어가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위기일수록 기회는 있다

하지만 취업전문가들은 스펙초월 전형, 상시 사내추천 채용 등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정근 사람인 대표는 "내부 직원을 통한 사내추천제도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기업에 근무하는 학교 선배나 지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맥을 넓힌다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도 "올해 상반기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상시채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상시채용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업기회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용 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최근 채용 트렌드는 스펙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과 탈스펙화"라며 "영어점수와 학점 등의 점수만으로는 지원자의 숨은 역량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셀프 리더십 포트폴리오 갖춰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도 공개됐다.

이 사람인 대표는 "요즘 같이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일하려는 인재보다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도전하려는 인재를 선호한다"며 "셀프 리더십을 갖추고 해당 조직에 필요한 인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필살기를 연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잡코리아 대표는 "기업들은 자기소개서는 물론 지원자의 포트폴리오, SNS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서 편시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평소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이 인크루트 대표는 "역량중심의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적성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업무 역량을 키우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익명기자 kmsee@metroseoul.co.kr

더 완전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 에서 확인하세요

중부지방 가뭄 심각

6월 이후 강수량 평년의 절반

지난달부터 중부지방에 이른 더위와 함께 비는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부 지방의 평균 강수량은 114.2㎜를 기록해 평년(268.4㎜)의 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 강화는 이 기간 40.5㎜의 비가 내려 평년의 15.4%밖에 되지 않았다.

강원도 원주는 64.6㎜(이하 평년 대비 23.4%), 인제는 92.4㎜(35.6%), 춘천은 105.7㎜(35.9%)로 가뭄이 심각했다.

장마전선이 일부 영향을 준 남부지방도 평균 165.1㎜의 비가 내려 평년의 절반(53.7%)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다.

경북 의성은 강수량이 69.1㎜(23.9%), 영천은 101.1㎜(41.4%), 전남 해남은 102.2㎜(31.1%)였고 부산도 평년 대비 42.2%인 153.5㎜의 비가 내렸다.

최근 가뭄이 심한 것은 장마전선이 제 힘을 받지 못해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온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제주도에만 주로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hj@

해운대 시원한 정책선거 7·30 국회의원 해운대 기장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덕광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윤준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선관위가 마련한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석해 각자 벽보를 공개하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2기 내각 출범”

오늘부터 보고서 누락 3인 재송부 가능 ‥ “민생경제 회복”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내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나 지명 철회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박 대통령은 15일부터 열흘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대상에서 빠지는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대로 포함된다면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셈이다.

여권에서는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 후보자는 포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정회중 폭탄주 회식' 논란이 이어지며 회의론이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팀에 "국민이 경제 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팔레스타인–이스라엘 '170 대 0'

가지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차별 공격, 숨진 팔레스타인 희생자 수가 14일 170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가 80%에 달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권고에도 일주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인 살상'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이 공습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강경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간 영토 문제 등으로 충돌하며 서로 총구를 겨눴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은 실종된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시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배후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목하며 공습에 나섰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스라엘이 '테러 시설'이라며 공격한 곳 중 상당수가 은행, 장애인 복지 기관 등 민간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신형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을 구축한 이스라엘 측 희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는 종종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로켓 등을 발사한다.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며 이 지역을 공격하기 일쑤다. 이번 공습에서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넘쳐난 이유다.

테러리스트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이 시설을 모두 테러 시설로 규정해 공격할 것인가. 그 어떤 이유로도 민간인 살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리스트가 과연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뉴스&뉴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오늘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월 통일준비위 발족을 발표한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을 구체화할 기구다.

아시안게임 실무접촉 17일 판문점서

●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통일부는 14일 "우리측이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내년 입영 카투사 2000여명 모집

● 병무청은 내년도에 입영할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20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카투사 지원자는 9월16~22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합격자는 11월6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 등 당대표 후보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표에 김무성 의원

최고의원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선출

김무성 의원이 14일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7·14 전당대회에서 5만2706표를 얻어, 유력 당권 주자였던 서청원 의원(3만8293표)을 꺾고 1위에 올랐다.

김태호(2만5330표)·이인제 의원(2만7826표)이 각각 3·4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을동 의원은 여성 후보로서 순위와 무관하게 당연직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혁신해 분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을 선도하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챙겨 더 다양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해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모두 잊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하는 새 지도부는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며 정부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이뤄야 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며 "정부도 이번 주에 2기 내각을 출범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北 동해서 또 방사포 100여발 발사

북한이 14일 122㎜로 추정되는 방사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북측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53분부터 방사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북쪽 수 백m 지점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방사포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1~8㎞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이 동해 NLL 이남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동해안 MDL 바로 북쪽에서 방사포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22㎜ 방사포의 사거리는 10~20㎞다.

북한은 9일 MDL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평산에서 스커드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 13일에는 MDL에서 불과 20㎞ 떨어진 개성 북쪽에서 같은 종류의 탄도미사일 2발을 역시 동해 상으로 쏘아 올렸다.

/조현정기자

피살 송씨 로비도 본격 수사

장부 등장 인물들 사실관계 확인…김형식 혐의 입증 더 주력

검찰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살해 직전인 올해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장부를 작성해 왔다. 장부에는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위급 경찰관 4~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 대한 금전 지출 내역이 적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액수나 용도, 직책 등을 감안해 해당 인사를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가 적어도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살인교사와 살인이기 때문에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도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현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시한부 파업 늘어선 트럭 화물연대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1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화물트럭이 늘어서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 운임법제화 와 지입차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등을 위해 전국 1만3000여명의 노조원이 하루 시한부 파업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단원고 피해학생 대입특례 가시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에서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로 ▲생존한 단원고 2학년생 정원 외 대학 입학 ▲국공립대학 피해학생 특별전형 확대 ▲단원고 3학년생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 정원 3% 내 정원외 입학 ▲단원고 재학생·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정원 외 대학 입학 등이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단원고 2학년생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호기자

세월호 수사팀 미제사건 급증

대검찰청이 1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해운업계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의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09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역시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 이상 늘었다.

/김승룡기자

한국야쿠르트-서울시, 희망저금통 캠페인 전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희망저금통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식에서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사장(왼쪽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연배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올해도 캠페인을 위해 총 11만7000여 개의 희망저금통을 제작했으며 연말까지 서울시 산하기관과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상습 체불 사업주 임금 2배 물어내야

4개월 이상 고의적 경우도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어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 된다.

/김민호기자

구형 10원동전 40만개 녹이려다 들통

금속 값어치만 3~4배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선단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성분의 값어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 착안했다. 구리(65%)와 아연(35%)으로 만들어진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금속 값어치가 30~4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구형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기자

경찰 도심 야간순찰 강화

경찰이 치안이 취약한 밤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찰 탄력 근무체제를 다음 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14일 "지난 4~6월 시간대·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지구대·파출소 탄력 근무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8월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심 치안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순찰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형 순찰근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농촌에서는 거꾸로 야간보다 주간 근무를 강화하는 유연파출소와 관리반 통합제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12 신고 현장 도착 시간이 종전보다 54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호기자

물에서 든든한 웨트병 14일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어린이들이 웨트병을 이용한 물놀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 "정지!" 수신호 없었다면…

과천역서 만취 60대 전동차 치였다 생명 건져

만취한 60대 남성이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선로로 뛰어들었다가 전동차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당시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이 역사로 진입하는 전동차 쪽으로 손을 흔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과천시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선로에 누워있던 장모(60)씨가 당고개발 오이도행 전동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장씨는 머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천역 선로가 곡선이어서 플랫폼과 선로 사이 공간이 다른 역보다 넓다"며 "그 틈에 장씨가 끼어있었지만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의 수신호로 전동차가 급정차하면서 속도가 느려져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장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25분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카메라(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임은지기자 zelk m@metroseoul.co.kr

서울우정청 복련회,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울지방우정청 여직원들로 구성된 '복련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조손 가족과 홀몸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주명신 서울강서우체국 우편영업실장 등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조손 가족과 홀몸어르신 50가정에 배달했다.

이들은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여성 관리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1982년에 만든 소규모 모임이다. 현재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2005년 7월부터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저소득 가정 급식 지원, 홀몸 어르신 칠순잔치, 장애우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 등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원한 동굴 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가학광산동굴을 찾은 시민들이 서늘한 동굴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사범 삼진아웃! 상반기만 16명 구속

서울동부지검이 올해 상반기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51)씨의 경우 지난해 8월 4일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팔각정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됐을 정도의 범죄지만, 검찰은 폭력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김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현준기자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연회

서울시 강남구는 내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사용 금지에 대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량제 방식 선정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는 18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별 시연회 등 진행할 계획이다.

'하계스포츠 캠프' 진행

서울시 관악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스포츠 캠프'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캠프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4일부터 21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금천구, 어르신 삼계탕 대접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삼계탕 대접 행사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5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서울새기라이온스 후원으로 마련됐다.

metro Russia

Челябинец сдви
колесо обозрени

metro Brazil

Polícia enc em coluna

Duas bananas de dinamite foram encontradas pela polícia afixadas em uma coluna da obra do monotrilho da linha 15 Prata do metrô, na madrugada do dia 29 de junho. Segundo a SSP (Secretaria da Segurança Pública), elas não tinham risco de explodir. O artefato foi apreen... po de... ciais)... De... Civil, da não... ram... constr... metrô... popem...

기차역에 다이너마이트 경악

브라질 상파울루의 모노레일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최근 15호선인 프라타 내 모노레일의 기둥에 붙어있던 다이너마이트 두 개를 발견했다. 경찰에 의하면 신관이 붙어있지 않은 4명의 용의자가 도시 동부 사포펨바가의 공사현장의 일부를 폭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사현장 감시단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보자마자 도주해 범행에 실패하지는 못했다.

metro Peru

Ofertas en línea durante dos días

사이버 데이 맞아 '폭탄 세일'

리마 상공 회의소(CCL)가 15일과 16일 이틀간 '페루 사이버 데이'를 진행한다. 페루 사이버 데이는 페루의 대표적인 전자 상거래 업체가 참여하는 페루 최대의 온라인 쇼핑 이벤트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14개 업체가 참가한다. 생필품과 여행 상품을 비롯해 할인 쿠폰, 패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할인 리스트에 올라 있다.

헉! 맨손으로 대관람차 한바퀴

"괴력의 사나이"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바퀴 속도보다 빠르게 끌어 화제

러시아 남성이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를 맨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해 화제다.

무시무시한 괴력의 주인공은 첼랴빈스크주 자력사 엘브루스 니그마툴린. 니그마툴린은 이미 트람바이(러시아식 노면전차)와 기차, 비행기 선박 끌기에 성공, 러시아에서 유명인사다. 그는 이번에 대관람차를 수동으로 한 바퀴 돌리며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오스트리아인 프란츠 뮐리네르가 대관람차 끌기에 도전했으나 목표한 거리를 완주하지 못해 세계 신기록 수립에는 실패한 바 있다.

니그마툴린은 "대관람차 바퀴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관람차를 끌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웠던 것이 성공 요인인 것 같다"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록을 세워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80명의 승객이 앉은 채로 대관람차를 끌 계획이었지만 놀이공원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며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마지막 4분의 1 지점이 가장 큰 고비였다"며 "친구와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니그마툴린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면서 러시아에서는 그의 과거 기록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그는 볼가 강에서 무게 760t의 선박을 20m 끌어 러시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로 알려졌다. 이후 32t 트럭을 17초 만에 10m 끄는 데 성공해 세계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으며 트람바이 7대(약 108t)를 한 번에 끌어 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니그마툴린은 연기자와 의원이라는 이색적인 이력도 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고, 2005년에는 첼랴빈스크 주의원에 당선됐다.

/스베틀라나 슬지코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s guides sont sans-

"노숙인 가이드와 파리 투어 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노숙인들이 파리 투어를 제공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지난해 8월 셀마(Selma)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이색 대안도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파리의 노숙인들이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이드투어를 선보이는 것.

그는 이후 두 달마다 체계적으로 투어 코스를 기획했다. 1년이 지나자 총 5개의 주말용 코스가 정해졌다.

셀마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용청을 통해 가이드에 적합한 노숙인들을 채용했고 현재 이들은 시간당 10유로(약 1만3000원)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파리 20구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구의 길을 함께 걸으며 스트리트 아트를 감상하고 스포츠를 함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이 있다. 셀마는 "어떤 경우엔 인기가 많아 한 팀에 16명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인기에 힘입어 파리 18구, 19구 역시 프로그램에 기획 중에 있다. 셀마는 "우리가 제공하는 일정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게 아니다. 천천히 도심을 둘러보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획단은 현재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셀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제공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더 수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보릴리 사흔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93.88 (+5.14)	561.50 (+4.92)

금리	환율
2.90 (+0.01)	1017.70 (-1.30)

뉴스&뉴스

컴투스 게임 대만·홍콩 평정

■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와 '낚시의 신'이 대만과 홍콩 구글플레이 상반기 장르별 최고의 게임에 선정됐다.

대만과 홍콩의 구글플레이가 14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에서 RPG 장르에 '서머너즈 워'가, 스포츠 게임 장르에 '낚시의 신'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서머너즈 워'는 1성 몬스터를 6성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다채로운 던전 플레이를 풀3D로 구현한 RPG다.

'낚시의 신'은 낚시 본연의 짜릿한 긴장감과 짜릿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고품질의 3D 낚시 게임이다. /박성훈 기자

일 평균 주식결제액 5.5%↓

●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 결제액이 하루 평균 43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5%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식 거래대금이 1.3%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1조4000억원으로 8.7% 늘어났다. 장외시장 기관 결제대금도 주식은 하루 평균 6700억원으로 3.4% 감소했으나, 채권은 18조9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균호
사회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 3
독자센터 02)721-9861
2006년 7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316

"IT강국?" 빅데이터 기술 2년 뒤져

기업 활용도 18% 불과… 정부 산업육성 지원 시급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려지만,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2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린다. 빅데이터란 기존 관리 분석 체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통용되던 위치정보 등을 망라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의 초고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빅데이터 활용·기술 뒤처져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기술 활용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빅데이터 핵심인 수집관리 분야 기술은 평균 2년, 연산처리 분야 3~4년, 분석 분야는 2년 이상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활용면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81.6%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7.5%에 그쳤고,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10.9%에 불과했다.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거나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묻자 마케팅(47.3%), 관리 운영(41.9%), 고객서비스(36.6%) 순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략기획(24.7%), 연구·개발(20.4%) 등 그 뒤를 이었다.

◆빅데이터 산업육성지원해야

대한상의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에서 개방되는 데이터 양과 질이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상업적 활용가치가 있는 정부보유 정보의 지식재산권 완화를 통해 가치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육성도 중요 과제로 지적됐다. 전문기업 창업지원, 공정경쟁환경 조성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빅데이터 관련 창업을 활발히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향상 ▲빅데이터 수요창출 ▲데이터 활용의 규제완화 등도 관련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유익준 기자 kys1@metroseoul.co.kr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태만이 원인" 투자자 4만여명의 투자자가 1조7000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가파른 증가세

지난해 2배… 2분기 들어 급증

올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3.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4조9000억원)과 견줘 2배에 해당한다.

하나(4.7%), 우리(4.5%), 농협은행(4.1%) 증가율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국민은행(3.4%)도 많이 늘었다.

특히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1~3월)보다 2분기(4~6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들 7개 은행의 대출 잔액은 1분기에 2조원(0.7%) 증가에 그쳤지만 2분기 들어 6조9000억원(2.4%) 급증했다.

올해 2분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4분기(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 기준 (단위: 억원)

분기	증감액
4분기 2010년	56,849
	40,510
2분기 2011년	54,693
	36,715
4분기	54,618
	5,064
2분기 2012년	43,201
	44,533
4분기	49,754
	-18,020
2분기 2013년	62,077
	13,218
4분기	64,584
	13,846
2분기 2014년	68,701

연합뉴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거래도 다소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1년 4.3%, 2012년 0.6%, 지난해 -0.2%에서 올해 0.9%로 상승 반전했다. 올 들어 지속된 대출 금리 인하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방식 금리를 보면 지난해 12월 평균 3.57~3.96%에서 지난달 평균 3.46~3.83%로 약 0.1%포인트 하락했다. /김현정 기자

삼성·현대자동차 경제비중 압도적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4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기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2년 39조원으로 전체 기업(155조1000억원)의 24.9%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16.9%였던 점을 고려하면 3년새 8%포인트 가량 증가한 셈이다.

두 그룹의 매출액도 412조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3464조1000억원)의 11.9%에 달했다. 매출액 비중은 2009년 10.0%에서 3년새 1.9%포인트 높아졌다.

개별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익 비중이 2009년 이후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12년 22조8000억원이었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법인이 벌어들인 155조1000억원의 14.7%에 달한다.

앞서 2009년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8조6000억원, 비중이 7.3%였던 점을 고려하면 3년새 비중이 2배 이상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2009년 121조6000억원에서 2012년 18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두 기업의 매출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5.3%로 0.7%포인트 늘었다. /이성경 기자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보험 청약철회 15일내 가능

금융위, 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을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박미란기자 miran@

한국 2년내 채권국 된다

대외자산 부채보다 많아

향후 1~2년 안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더 많은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한국이 1~2년 내 순대외자산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순대외부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9월 2139억 달러(약 217조80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3월 말 현재 43억 달러로(약 4조4000억원)로 감소했다.

대외자산과 부채가 균형 수준에 도달한 원인으로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한 대외 직접투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세 등이 꼽힌다. 한국의 해외투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우선 지난 2008년 32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 289억 달러, 2012년 508억 달러, 지난해에는 799억 달러로 급증했다. 6년 만에 25배가 된 것이다.

/연합뉴스

뜨는 '원자재펀드' 명성 되찾나…

유가 상승기엔 '유전 펀드' 유리

지난해 죽을 썼던 원자재 펀드가 올해 들어 높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원자재 펀드란 원유, 곡물, 금속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5개 원자재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7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는 같은 기간 각각 0.34%와 0.13%의 손실을 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신한BNPP골드펀드'와 'KB스타골드특별자산펀드'가 같은 기간 각각 18.39%, 9.46%의 성과를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이어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펀드(8.95%)와 우리글로벌천연자원펀드(8.65%)도 높은 수익률을 냈다.

이처럼 원자재 펀드가 올 들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돌발 변수가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률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자금 유입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원자재 시장으로 59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전세계 원자재 펀드 규모가 5월말 현재 3650억 달러 선까지 올라섰다.

또 해외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면 상장지수펀드(ETF)가 유리하다. 원유에서는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펀드'가 대표적이다. 곡물분야에서는 삼성KODEX콩선물(H)특별자산상장지수'와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 등이 있다.

원자재 가격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도 유용한 투자 방법 중 하나다. DLS는 특정 상품이 사전에 제시한 가격에서 움직일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받는 구조다.

유가 상승기에는 성과 개선폭이 큰 유전펀드가 유리하고, 유가 약세가 예상될 때는 DLS를 통해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자재 펀드도 투자시 유의할 점이 있다.

펀드 전문가들은 "원자재 펀드는 수급과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투자 차원의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1@metroseoul.co.kr

벤츠, 더 뉴 C-클래스 금융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다음달 조기지 진행 6개 전시장 지시 사용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더 뉴 C-클래스(The New C-Class) 특별 금융프로그램 이벤트를 벌인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제공

이통3사, '묵묵부답' 언제까지…?

팬택 '출자전환' 참여 결정 못해…대표·직원들 나서 읍소

"아직 팬택 출자전환 참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팬택의 운명이 이동통신사에게 넘어간 가운데 이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팬택 내부에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통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살길 모색에 나서고 있다.

14일 팬택 채권단에 따르면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팬택이 지난 3월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3000억원, 이통사 1800억원 등 총 4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가결했다. 이에 이통사가 출자전환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채권단 역시 팬택에 3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 여부 답변 시한도 지난 4일까지에서 8일로, 이후 '답변을 받을 때까지'로 잇따라 연기됐다.

채권단은 팬택이 이처럼 위기 상황에 처한 데 대해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한 이통사 책임도 있는 만큼 출자전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일이 필요한 결정인 만큼 생각할 시간을 넉넉히 게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결정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일 뿐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채권단이 무작정 우리쪽으로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팬택 살리기에 대한 이통사의 고민이 길어지자 팬택 대표와 직원들도 직접 나섰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에서 팬택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통사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이통사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팬택의 상황은 이통사에 큰 짐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채권단의 제시안이 이통사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에서 팬택이 존속할 수 있도록 채권단 제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팬택의 젊은 직원들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 토론마당에 "팬택 직원들이 직접 공기계를 판매하면 회사의 자금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회사 살리기에 직접 나서자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통사가 팬택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판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기계를 직접 팔아 회사 자금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데서 비롯됐다.

직원들과 경영진의 공식 대화채널이기도 한 주니어보드는 이번 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우리 구성원이 회사에서 직접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출자전환 참여 여부를 놓고 어떤 결정이든 이른 시일 내에 내려야 팬택이 살아나도 다음 플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통사에 대한 여론도, 팬택의 상황도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롯데마트 초복 보양식 판매 1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초복 보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7일부터 23일까지 특정 카드 결제시 삼계탕용 닭(400g, 냉장) 1마리를 1980원에, 무항생제 닭(800g, 냉장)을 5480원, 국산 꼬마전복(7마리, 냉장)을 9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이고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1959년 등록),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었다.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된 뒤 다섯 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420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등록되고 나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다.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수명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유주영기자 boa@

현대차, 월드컵 결승전 마케팅 효과 '톡톡'

현대자동차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현대차 온라인 팬 파크에 참여한 축구팬의 얼굴을 경기장 내 A 보드에 띄우는 이색 마케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전 세계 축구팬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현대차 월드컵 마이크로사이트(http://worldcup.hyundai.com)에서 인기투표를 실시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참여자 4명의 얼굴을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장 내 현대차 A 보드에 'THANK YOU FANS'라는 메시지와 함께 띄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대차 월드컵 마이크로사이트는 전 세계 축구팬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사진, 음악,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온라인 팬 파크로 지금까지 약 750만 명이 방문해 72만개 이상의 응원 메시지를 담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세계 축구팬과 함께하는 월드컵 축제의 장인 온라인 팬 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이번 월드컵 기간에 ▲전 세계 6개 도시에서 글로벌 팬 파크 운영 ▲시승행사 진행 ▲각 국가대표팀 버스 월드컵 랩핑 지원 등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을 진행했다.

/정의석기자 fame258

스마트폰 첫화면 꾸미기 돈된다

스마트폰 첫화면 꾸미기 앱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포털 다음의 자회사 버즈피아는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와 손잡고 전 세계 인기 여행지 정보를 버즈런처 홈팩에서 소개하는 글로벌 프로모션을 한다.

양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인 여행객들이 익스피디아에서 가장 많이 예약한 인기 여행지 4곳(한국, 일본, 방콕, 하와이)을 선정, 각 여행지 특색과 정보를 담은 여행지 홈팩 8종을 14일 출시했다.

이달 선보인 한인 여행객 인기 여행지 홈팩은 다운로드 한번으로 한국과 일본, 방콕, 하와이의 풍경이 담긴 배경화면뿐 아니라 현지 여행 예약과 할인 혜택은 물론 현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과 위젯까지 한번에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글로벌 프로모션을 기념해 인기 여행지 홈팩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이용자 전원에게 익스피디아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 예약 10% 모바일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올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박성훈기자 zen@

BMW 드라이빙센터 내의 갤러리.

BMW, 亞 최초 드라이빙센터

브랜드·드라이빙 복합공간 전시·체험까지

BMW 그룹 코리아가 8월 조 일반 개장에 앞서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BMW 드라이빙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에 설립되는 이번 BMW 드라이빙센터는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이다. 가족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와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의 주제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이다.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체험 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됐다.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BMW·MINI 고객을 포함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연간 2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

방문객들은 BMW와 MINI를 운전해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BMW와 MINI 브랜드의 역사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BMW 드라이빙센터 오픈 기념식에서 이언 로버슨 BMW 그룹 세일즈 마케팅 총괄 사장은 "BMW 드라이빙 센터는 고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BMW 그룹의 퓨처 리테일(Future Retail) 전략의 일환이며 그룹 내에서 한국이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BMW와 MINI 브랜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혁태기자 [illegible]

실리콘밸리가 '섹스밸리'로?

야후 女 임원 부하에 구강성교 요구
구글 임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살해

IT신업의 메카로 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섹스밸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글로벌 IT기업을 대표하는 구글과 야후의 임원들이 잇따라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

CNN,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14일(한국시간) 야후의 전 직원인 중국계 여성 시(Shi)가 직속 여성 상관이었던 마리아 장 모바일 부문 임원을 상대로 성폭력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시는 고소장에서 장 임원의 편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시로 구강 성교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자리와 주식을 빼앗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했고 성관계 직후에는 근무외 시간임에도 강도 높은 업무를 명령했다"고 하소연했다.

LG에 아이디어 제공해 볼까 LG전자는 14일 혁신적인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 LG'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 선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LG' 공식 사이트에 접속, 아이디어 제안서를 등록해 심사를 거쳐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4%를 초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LG제공

시는 잠다못해 성관계를 거부했고 장 임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받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야후 인사팀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논란이 회사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야후 측은 "장은 모범적인 야후의 임원"이라며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4월 성매매 여성 알릭스 티첼먼은 구글의 임원 포레스트 하이예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티첼먼은 고급 요트에서 하이예스를 만나 치사량의 마약을 주사한 뒤 달아났다가 9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티첼먼이 매춘을 목적으로 하이예스를 만났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야후의 임원들이 충격적인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섹스밸리로 둔변한 배경에 대해 호사가들의 입방아를 찧고 있다.

무엇보다 벤처기업 수준이었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어느 순간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꼽는다.

CNN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콜걸 중 일부는 100만 달러(약 10억원)를 벌기도 했고 남성 고객들은 지갑이 넘칠 정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닌다.

갑자기 늘어난 돈이 실리콘밸리의 잇따른 섹스 스캔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중소·벤처 '돈 되는 특허' 주목

기술경쟁력 키워 각광

최근 각종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키워줄 '돈이 되는 특허'를 출원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에이전시 유플리트는 소셜카드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장치와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 품목, 가격이 SNS에 등록되는 형태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고객을 매개로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 가격 경쟁력을 SNS 기반으로 확산할 수 있어 프로모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고객의 가맹점 프로모션을 매개해 주는 대가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 가격 할인 등 고객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가맹점과 고객 간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유플리트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에이전시 핵심 고객군인 금융 파트너와 면밀히 검토해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다"며 "소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제공업체(ASP) 파트너로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 전문기업 원투씨엠은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인 스마트 스탬프 인증 플랫폼 글로벌 서비스 버전 2.0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버전 4.1을 공식 출시했다.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은 '이른바 폰에 찍는 도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전세계 최초로 국내 독자 기술과 특허에 의해 모든 스마트폰에 고유의 인증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다.

스마트 스탬프는 체크인 서비스, 쿠폰, 상품권, 멤버십, 지불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원투씨엠은 페어랩크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SDK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에스티소프트도 특허청에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끝냈다.

/이재웅기자 jjy0403@

"하반기 위기, 실력으로 넘어서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와 기아차는 1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주재로 해외법인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글로벌 생산 판매 전략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 ▲신흥시장 침체 ▲환율 등 3대 위협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위험을 비켜갈 수 있는 우회로는 없다며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생산 규모에 걸맞은 품질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뒤 제품 개발 初期 단계부터 품질 점검에 주력하고, 교육을 확대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지 소비자에 특화된 제품 개발 및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 수립에 주력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시장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통해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별 판매 네트워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363만6465대)보다 5.4% 증가한 404만3415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과 함께 신흥시장에도 판매가 고르게 신장되면서 해외에서만 지난해 상반기보다 5.9% 증가한 347만8217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산재해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날 회의엔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정혁수기자

공공기관·기업 이전… '대체 주거지' 각광

출·퇴근 가능하면서 저렴한 주택찾기 나서
건설사, 옆 동네 가서 신규분양 홍보하기도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30대 이모씨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회사가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착잡하기만 하다. 이사를 가자니 판교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왕복 120km나 되는 길을 매일 출·퇴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판교보다 저렴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광주나 용인에 새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청사,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이전이 줄을 이으면서 '대체 주거지'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회사가 이전한 지역의 주변 집값이 너무 높거나 삶의 터전을 바꾸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모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광명이다. KTX광명역에서 오송역까지는 29~35분이 소요되고 오송역에서 BRT를 이용하면 약 20분 만에 정부청사까지 갈 수 있다. 1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KTX광명역과 가까운 광명시 소하동 일대 아파트 전셋값은 2년 만에 30% 이상 급등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70%를 넘어선 상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세종시로 이사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광명시로 이주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며 "이들 중 일부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시점이 비슷하다. 경기도가 조사한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곳 입주기업은 총 855개사, 상시 근무자는 5만8000여 명이다. 국내 대형게임사와 IT 기업이 몰려있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의 전셋값은 강남3구와 비슷한 3.3㎡당 1,390만~1571만원에 이른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업종 특성상 20~30대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지난 3월 서울권 등에서 이전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근로자 통행거리·통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과거 12km·40분에서 현재 28km·70분으로 1.7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교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들은 주변 성남 구시가지(수정구)나 용인시, 경기 광주시 등으로 주거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대림산업이 경기 광주시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광주역 분양홍보관이 판교역에 있는 이유도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이 회사는 내년 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단지 앞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3정거장 거리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퇴근길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분양상담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다"며 "대부분 장거리 출·퇴근자들로 교통호재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1[illegible]@metroseoul.co.kr

라스베가스샌즈 복합리조트 모델 라스베가스샌즈는 14일 한국에 건설하려는 복합리조트 모델 이미지를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복합리조트 이미지는 건축 기술은 물론 건축적 미학을 극대화한 디자인이다.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를 형상화한 호텔 타워에 2600여 개의 객실 규모로 계획됐다. /라스베가스샌즈 제공

사람 다시 몰리는 이유는?

용산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방문객 3배↑

5월 말 문을 연 '용산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에 지난 주말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모델하우스는 오픈 후 3일간 방문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이후부터는 급속히 감소한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용산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에 총 300여 명의 수요자가 다녀갔다. 평소 주말 내방객이 100명 안팎인 것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오픈한 지 두 달이 다 된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다시 몰린 데는 지난 4월 견본주택을 개관한 '래미안 용산'의 영향이 크다. 용산역전면2구역과 3구역에 나란히 들어서는 두 단지를 비교하고자 수요자들이 '용산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은 것이다.

두 단지는 애초 5월 말 함께 분양을 계획했지만 래미안 용산이 조합원과의 마찰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용산 푸르지오 써밋'만 예정대로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후 '래미안 용산'이 이달 분양을 재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서 공급한 단지로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용산역 일대 지어지는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입지와 상품이 비슷하다"며 "래미안 용산의 분양이 한 달 정도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두 단지를 꼼꼼하게 비교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픈 당시 상담을 받은 방문객의 30% 정도가 두 단지를 비교해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래미안 용산 당첨자 발표까지 이뤄지면 계약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8월 분양비수기, 수도권 32%·지방 43% 급감

분양 비수기로 접히는 다음달 8월 전국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70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8월 전국에서 아파트 1만7668가구가 신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36.4%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은 작년 같은달(1만7119가구) 대비 32% 감소한 1만1567가구가, 지방은 43% 감소한 61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로 8월 분양을 계획한 사업장이 많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청약자격 완화,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등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작년(5359가구) 대비 약 50% 줄어든 27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2차' 25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재개발 민간분양 물량은 GS건설이 성북구 보문동3가에 공급하는 보문3구역자이 482가구 등을 주목 할 만하다. 이 외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세곡2지구 6단지 115가구와 내곡지구 2단지' 681가구, '내곡지구6단지' 196가구 등이 공급된다.

경기는 전년(10만517가구) 대비 15.7% 감소한 886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나 민간 물량은 호반건설이 광명 일직동에 1430가구의 '광명역세권주상복합1BL'을 공급한다. 이지건설은 '평택청북지구이지더원' 513가구, 이수건설은 '이수브라운스톤' 94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 물량은 '남양주별내A8-1' 772가구, '별내지구A9BL' 483가구, '하남미사보금자리(A8)' 1339가구, 화성동탄2신도시(66BL) 1552가구 등이다.

한편 지방에서는 경남과 세종시를 눈여겨볼 만하다. 경남에서는 양산물금지구 36BL에서 '양산물금지구1차' 415가구, 창원 '회성1동구역주택재개발' 833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세종은 작년 8월 분양소식이 없었지만 올해는 3-2생활권 M3에서 '대방노블랜드' 1079가구, 2-2생활권 M9 10에서 672가구 등 1751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LH는 대구테크노폴리스 A-1BL에 1390가구, 강원 원주혁신A1BL에 936가구의 국민임대를 공급한다.

/김두탁기자 kmd[illegible]

꼼꼼 IT 리뷰 - 라이프프루프 방수 케이스

물속 아이폰 사용 "생각만 해도 신나"

"소중한 내 아이폰을 워터파크나 해변에서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을까."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고민을 하는 애플마니아들이 많다. 방수팩으로 아이폰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왠지 어색하고 IT패션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프프루프의 방수케이스는 이같은 고민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소위 '물건'이다. 일반 아이폰 케이스와 같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으로도 방수가 가능할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간단한 생활방수 수준을 넘어선 국제규격 IP-68 등급 인증까지 받았다. 수심 2m 깊이의 물속에서 1시간 동안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미리 테스트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폰 보관의 테스트용 케이스 안에 휴지를 넣고 물속에 한시간 가량 넣어놓아도 물 한방울 젖지 않는다.

특별한 장치없이 워터파크나 바닷가 물속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검색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방수팩을 사용할 때처럼 사진이 뿌옇게 나오거나 터치ID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없다.

라이프프루프 방수케이스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아이폰을 완벽하게 보호한다. 이는 강화 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폴리카보네이트 프레임을 통해 미국 국방부기 제정하는 MIL-STD 810 등급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일반 케이스의 3~4배에 육박하는 9만원 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해 보인다. /이국명기자 [illegible]

휴가철 알뜰 통신서비스 이용을…

데이터 로밍 패턴에 맞춰 - 제휴 할인도 적극 활용

휴가철을 맞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CF 문구가 그 어느 때보다 와 닿는 요즈음이다. 여행할 때 유용한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데이터 로밍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로 접수되는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로밍은 AT&T 차이나 모바일 등 현지에 깔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용자가 해외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통신 패턴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 지도, 인터넷 검색, SNS 등 데이터 사용이 많은 고객들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로밍 서비스 가입을 고려해 보자. SK텔레콤은 하루 9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1만1000원(부가세 포함)에 요금 폭탄 걱정에서 벗어나 24시간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하루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타 통신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동안을 1일로 계산하지만 LG유플러스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다음 날로 요금이 나온다.

항공사와의 제휴도 눈여겨 보자.

SK텔레콤은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한항공 엑설런트(Excellent) T로밍' 서비스를 내놨다. 이 상품은 2가지로 구성돼 있다. '대한항공 엑셀런트 T로밍 3일'은 2만9000원으로 3일 간 데이터 무제한, 음성 30분, SMS 30건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엑설런트 T로밍 5일'은 데이터 무제한, 음성 100분, SMS 100건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자사 고객에게 기존 보다 1100원 할인된 8900원에 데이터 무제한 로밍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데이터 이용이 많지 않은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데이터로밍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자. 그 밖에도 해외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갖자. 홍콩 관광청은 통신회사 PCCW와 손잡고 8000곳이 넘는 곳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 관광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장소와 와이파이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해 보자.

해외 유명 관광지 입장료는 물론 숙박 비용도 할인 받을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에서 호텔 예약 시 7% 할인 혜택을 준다. 또 홍콩, 일본의 디즈니랜드와 싱가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관광지 입장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교통패스 할인, 미국 프리미엄 아웃렛, 유럽 맥아더글렌 아웃렛 등 해외 유명 아웃렛의 VIP할인 쿠폰북도 받을 수 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새로텍 가정용 감시카메라 출시

국내 외장하드 제조사 새로텍은 외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원격 제어와 실시간 고화질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무선 네트워크 감시카메라 'IPCAM 1000', 'IPCAM 300' 2종을 14일 출시했다.

'IPCAM-1000'은 100만 화소(1,280 x 720p), 'IPCAM-300'은 30만 화소(640 x 480p)의 고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가정용 유무선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다.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제품 하단에 부착된 QR코드만 스캔하면 간단하게 설정이 끝나며 전용 앱(안드로이드, iOS 전용앱 무료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 영상 시청과 제어가 가능하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돼 집안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 돌보미에게 아기를 맡긴 경우, 반려견의 상황이나 병실의 노인 간호, 집안에 침입자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IPCAM 1000'과 'IPCAM 300'의 가격은 각각 13만9000, 8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스마트폰 중독 걱정 끝 SK플래닛은 청소년 종합 안심 서비스 'T청소년안심팩'을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19세 미만 청소년 고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전문기관과 실시간 상담 기능이 있다. /SKT 제공

'싸이메라' 글로벌 1억 다운로드

SK컴즈, 하루 450만·월 2600만명 이용

SK커뮤니케이션즈의 카메라 앱 '싸이메라'가 서비스 2년4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1억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싸이메라는 자체 개발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보정과 성형 기능을 내세운 카메라 앱 서비스로 2011년 12월 출시됐다.

젊은 여성층의 지지속에 매월 내려받기 100만 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12월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싸이메라의 인기는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초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바람은 이어 미국, 유럽 등지를 거쳐 현재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지역까지 휩쓸었다.

이미 200만 다운로드 돌파 지역이 20개국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 중 500만 건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도 7개국을 넘어서는 등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1500만 건을 돌파하며 국민앱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포토 SNS를 기치로 내걸었던 싸이메라는 현재 220여 개국에서 매일 450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월간 이용자는 2600만여 명이다.

전체 이용자 중 해외 이용자가 80%이상으로 별도의 마케팅 활동 없이 바이럴만으로 해외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SK컴즈는 '싸이메라 시즌2'를 내놓고 글로벌 SNS 플랫폼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튀는 '건강 식재료' 인기

삼채·방아잎·하귤·하얀 민들레 등으로 입맛 유혹

본도시락 '삼채 닭가슴살 샐러드'

계절밥상의 '방아잎 잡떡'

외식업계가 새로운 맛과 향으로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색다른 메뉴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들 메뉴에는 보기 드물었던 삼채부터 제주도에서만 재배된다는 여름 귤까지 활용되고 있다.

먼저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은 도시락 업계 최초로 삼채를 활용한 여름 신 메뉴인 '삼채 닭가슴살 샐러드'를 최근 선보였다.

삼채는 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단맛·쓴맛·매운맛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얀마 북부 히말라야 자락 1400m이상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식이유황 성분이 마늘의 6배에 달해 면역력 강화와 성인병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쌩뜨락 피자를 제조하는 '웰빙을 만드는 사람들'은 티 바라떼 브랜드 뽕잎을 혼합하여 모든 메뉴에 뽕잎성분과 오디베이스를 첨가했다.

뽕잎에는 칼슘·단백질·비타민·섬유질 등 각종 영양분이 함유돼 있다. 또 오디에는 비타민 A·B1·B2·D와 칼슘·인·철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뽕잎은 체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배출에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 음료로 좋다. 또한 뽕잎 원액을 커피에 블렌딩 해 쓴맛은 중화 시키고 구수함과 감칠맛은 높였다는 평가다.

CJ푸드빌의 한식 뷔페 '계절밥상'은 여름 제철 식재료 '하귤'을 활용한 메뉴 '하귤 옥수수 제소무침'과 '하귤 경단 과일무침' '하귤빙수' 등을 내놨다. 하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여름 귤이다.

계절밥상은 이에 앞서 지난 봄에는 경남 진주에서 수확한 '방아'로 만든 메뉴 '방아잎 잡떡' '방아잎 깍두기 볶음밥'을 선보이기도 했다.

민트 과로 우리나라 토종 허브인 '방아잎'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향이 음식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더해준다. 한방에서는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생약으로 쓰이는 재료다.

이곳에선 지난 4월 귀한 토종 식재료인 '하얀 민들레'를 활용한 '하얀 민들레 국수 무침'을 5월 말까지 한정 기간 선보였다.

이 식재료는 한방에서 포공영(蒲公英)으로 불리며 약재로 사용되며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필수 아미노산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서양 민들레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들레는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 '로이 바타베디안'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식물 5가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팥 대신 망고'… 대만발 빙수 공세

현지맛 살리기 위해 기계·재료 등 직수입까지

올 여름 식음료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식재료는 망고다. 몇 해 전만 해도 메론과 함께 값비싼 수입 과일로 여겨졌지만 최근 수입량이 2011년보다 6배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대중 과일로 거듭나고 있다.

망고빙수 역시 덩달아 인기다. 이런 가운데 대만 등 현지에서 유행하는 망고 팥유 빙수들이 국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빙수와 팥에 달콤한 망고에 얼음이 어우러져 특히 대만 발 브랜드의 망고빙수는 현지 제조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인기가 높다.

대만 티 브랜드 공차코리아는 대만 망고빙수 제조방식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현지에서 얼음과 얼음 기계를 공수해왔다.

한국에서도 대만 현지의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망고빙수를 선보였다.

공차코리아의 망고빙수(사진)는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페이스트리처럼 부드러운 얼음을 겹겹이 쌓은 것이 특징이다. 달콤한 생 망고와 상큼한 셔벗트가 보충한 얼음과 어우러져 신선하고 부드러운 천연 망고의 맛을 선사한다. 망고의 풍부한 수분과 섬유질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대만 여행객에게 친숙한 3대 빙수 브랜드 스무시가 부산에 상륙했다.

스무시는 대만 현지 망고빙수를 그대로 선보이기 위해 여름 망고, 망고 아이스크림 등 식재료는 물론 제품을 담아내는 용기까지 대만에서 직수입했다고 한다. 우유·물 등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는 대만 본사의 엄격한 허가를 거쳐 사용된다.

대표 메뉴인 망고빙수는 천연 사탕수수 추출물을 사용해 인공적인 단맛을 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과일 당도 정도로 단맛을 최대한 낮췄다. 앞으로 스무시 코리아는 부산에 이어 전국으로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황경림 기자

"치킨 먹고 닭죽 먹고" 일석이조

굽네치킨, 여름 겨냥 한정 신제품 선봬

오븐구이 치킨전문 굽네치킨(대표 홍경호)은 더운 여름을 겨냥해 여름 한정 신제품 '오복치킨(오븐에 구운 복날 영양치킨)'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복치킨은 ▲치킨 한 마리 반 ▲삼계죽 1팩 ▲인삼 꿀소스 ▲굽네 소금으로 구성됐다. 생강, 계피, 감초, 인삼 분말 등이 첨가돼 달콤한 인삼향이 밴 치킨에 인삼 꿀소스가 제공돼 조화를 이룬다. 같이 증정하는 삼계죽은 국내산 찹쌀, 멥쌀, 밤·대추, 인삼, 닭을 포함한 건강식으로 따뜻하게 데워 전달된다. 굽네 소금은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 함초를 사용해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굽네치킨 페이스북에서는 오복치킨 출시를 기념해 14일부터 3주간 '오복치킨 시리즈 퀴즈 이벤트'를 벌인다. 오복치킨에 대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맞힌 당첨자 중 매주 5명을 뽑아 굽네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홍경호 굽네치킨 대표는 "오복치킨은 더운 여름을 겨냥해 개발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냉장육만을 사용했으며 오븐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라며 "오복치킨은 한 마리 반을 제공하고 삼계죽은 추가로 증정하기 때문에 알찬 구성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은 기자 hana[illegible]

강강술래 인기상품 최대 40% 할인

피크닉세트·양념구이 등 실속메뉴 구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도 40% 파격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시원한 할인행사를 벌인다.

역삼점은 왕양념갈비(2대-560g)와 술래양념(8대-52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피크닉세트를 40% 이상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무료 냉면쿠폰을 3장을 증정한다. 홍대점은 돼지양념(750g 2만4000원)과 한돈양념(750g 3만원) 포장상품 2+1 행사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기력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ml·10팩·20인분)는 3만7800원, 대용량박스(800ml 6팩-18인분)는 3만86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또 피크닉세트(강강양념520g+한돈양념500g+한우불고기500g+돼지양념500g)는 40% 할인된 6만원, 알뜰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는 30% 할인된 4만400원에 판매한다.

캠핑이나 피서지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속 상품으로만 구성된 목탁세트(한우떡갈비360g+한돈너비아니360g+등심돈가스720g+오짝갈라돈가스720g)도 정상가보다 40% 할인된 3만9000원에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인 '캠핑은 120% 즐길 수 있도록 도보 자동차 추천 여행코스 등을 소개한 '캠핑 주말여행 코스북', 프랑스 대표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말하는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치유 매뉴얼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illegible] 기자

휴양지에선 '프린트 비키니'가 제격

올여름 수영복 트렌드… 과감한 '모노키니'는 날씬해 보여

여름 휴가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수영복이다. 제일모직이 휴가지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수영복 스타일과 바캉스 패션을 제안했다.

갑갑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휴양지로 떠날 계획이라면 자연에서 따온 문양의 프린트 비키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에잇세컨즈의 김은경 디자인 실장은 "이차수가 늘어선 휴양지에서는 페이즐리나 플라워 프린트를 활용한 비키니가 잘 어울린다"며 "평소에는 꺼려진 크고 화려한 문양도 해변가에서는 쉽게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노키니로 착시 효과 노려

아무리 유행이라도 배와 허리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비키니는 부담스럽다. 이럴 땐 비키니 위에 속이 비칠 만큼 얇은 형광색 튜드 점퍼를 걸치거나 비키니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원피스 수영복의 일종인 '모노키니'를 입으면 된다.

특히 모노키니는 양쪽 허리 부분이 과감하게 파인 형태가 많은데 이런 디자인은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착시 효과는 물론 일자형 체형이 많은 한국인의 몸매도 보다 입체적이게 보일 수 있게 도와준다.

◆화려한 액세서리로 리조트룩 완성

휴양지 리조트에서는 형형색색의 플라워 프린트가 더해진 티셔츠와 화려한 소품만으로도 제대로 휴가 기분을 낼 수 있다. 특히 크고 강렬한 열대식물을 형상화한 하와이안 프린트 셔츠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잇 아이템이다.

이와 함께 평소에 입던 일상복도 밀짚 모자나 페도라 등 소품만 잘 매치하면 멋스러운 바캉스 패션이 된다.

구호의 김현경 디자인 실장은 "올여름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와 맞물려 남미 전통 문양을 활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인기"라며 "평범한 옷에 남미 전통 부족의 문양을 활용한 가방이나 샌들만 곁들여도 세련된 휴양지 패션이 완성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불황에도 기본 의류 판매 급증

화려함보다는 '차분함' 선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차분한 색상의 베이직 아이템이 올해 유독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대표 김기표)는 올해 상반기를 정리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본 의류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상품으로는 무지 티셔츠·클래식 체크셔츠·피케 셔츠 등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78%·54% 증가했다. 여성 상품 역시 기본 재킷·슬리브리스 티셔츠의 판매량이 각각 30%·42% 증가하는 등 기본 아이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기본 의류의 판매가 눈에 띄게 높았던 이유는 길어진 경기 불황에 소비자들이 활용도가 높고 익숙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업계 측은 분석했다.

새로운 아이템은 작용 리스크가 있는 반면 베이직 아이템은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출로 활용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핑크·블루·오렌지 같은 선명한 색감의 의류는 전년 동기 대비 19% 판매가 감소한 데 비해 무채색의 판매는 오히려 21%나 증가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신발 쇼핑도 온라인몰에서…"

금강제화, 상반기 매출 36% 급증

국내 슈즈업체의 온라인몰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10~20대 젊은 고객들이 개성 있는 스타일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제화는 올해 상반기 금강제화 온라인몰인 금강몰의 슈즈 판매량은 약 15만 켤레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켤레에 비해 3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멀티슈즈숍 레스모아의 온라인몰도 44% 늘어난 약 6만 켤레의 판매량을 올렸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 스타일을 분석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온라인 전용 아이템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촉 채널을 늘려 접근성을 넓힌 것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온라인몰의 성장에 맞춰 슈즈업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이다.

금강제화는 편리한 쇼핑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신속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도 와키앤타키·칸투칸더스 등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로 확대하고, 브루노말리 핸드백·남성가방·액세서리 등의 카테고리를 늘려 토털 패션 온라인몰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레스모아 역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타임 세일·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휴가철 위험 질환 미리 대처하세요

이대목동병원, 꼭 알아야 할 건강 5계명 발표

휴가 성수기인 7월,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쉬려고 떠난 휴가지에서 질병을 얻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대목동병원이 휴가철 급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휴가철 꼭 알아야 할 건강 5계명'을 제시했다.

5계명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야외활동을 피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물놀이나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한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남은 음식은 과감하게 버린다 ▲휴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지친 면역력을 회복한다 등이다.

전혜진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쉬려고 떠난 휴가지에서 오히려 질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다. 휴가를 계획하고 떠나기 전에 미리 휴가철 위험 질환을 숙지하면 예방과 대처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스트랩만 바꾸면? 세련된 '멀티유즈' 시계

'사무실에서도 휴가지에서도' 러버·가죽·메탈 자유롭게 변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가지 제품으로 다기능을 소화하는 '올인원' 제품이라든지 일상과 휴가지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등이 인기다.

이성들에 비해 평상 시 연출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비교적 적은 남성들에게 시계는 실용성과 스타일 2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제품이 선호되기 마련이다. 바캉스 시즌엔 물과 땀으로부터 자유로운 러버 밴드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평상 시 비즈니스 룩이나 캐주얼 룩을 연출 할 때에는 가죽, 메탈 스트랩으로 자유자재 연출이 가능한 시계 제품이 실용적이다.

티쏘(TISSOT)의 퀀스타(사진왼쪽)는 더운 여름철 장마 시즌에 땀이나 물로 얼룩지기 쉬운 스트랩을 러버 밴드로 교체하고, 그 외 비즈니스나 일상에서는 가죽이나 메탈 스트랩으로 바꿔서 착용할 수 있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했다.

미도(MIDO)의 오션스타 '캡틴'(오른쪽) 시계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스포티함이 함께 공존하는 제품이다.

방수 시계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시계는 로테이션 베젤과 200m 이상의 방수 시스템을 장착해 스위스 시계를 선호하는 해양스포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좋다.

항스크래치 코팅 처리한 사파이어 클라스, 3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과 38시간 지속 가능한 파워 무브먼트가 내장돼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활용을 돕는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보틀' '텀블러'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

발포비타민·워터 믹스 제품도 덩달아 인기

최근 보틀과 텀블러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갈증과 함께 자신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보틀이 스타일과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여성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도 이들 제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와 함께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발포비타민, 워터믹스 제품도 수혜 상품으로 등극했다.

실제로 옥션의 경우 검색창에 '보틀'을 치면 연관 연검색어로 '마이보틀', '워터보틀' 이 뜰 정도로 최근 한달 들어 검색량이 전월보다 5배 이상(560%) 늘었다.

이런 인기속에 이 마켓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한달 동안 꿀병-물통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옥션에서만 약 200여 개의 투명 보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보틀은 언뜻 보면 일반 물통과 다를 바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담는 음료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투명 보틀에 본인의 명언이나 이름 등을 새겨 자신만의 물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개성이 강한 젊은 층 남녀에게 인기비결이 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보틀을 구입하는 10대 연령층은 같은 기간 850% 20대 235%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텀블러 판매율도 265%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텀블러는 주로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보온·냉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각양각색으로 디자인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옥션에서는 주로 2만원대 미만의 저렴한 텀블러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보틀과 텀블러의 인기에 힘입어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제품들도 덩달아 판매가 증가했다. 대표 상품으로 발포 비타민은 같은 기간 15% 증가했고, 원두커피(60%)를 비롯해 녹차(50%) 등도 판매가 늘었다.

김은선 옥션 생활주방팀장은 "텀블러는 직장인·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환경을 위해서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도 권장되고 있다"며 "특히 과거에는 물병의 기능과 편의성에 집중됐다면 요즘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져 여성들 사이에서 보틀이나 텀블러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실기자 · ines@metroseoul.co.kr

오후 3시 홍시빙수 증정 뚜레쥬르가 가로수길에서 홍시빙수 증정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뚜레쥬르는 오는 15일과 29일 오후 3시 강남역점 앞에서 선착순 150명에게 에이스 홍시빙수를 무료 증정하고, 플랫을 들어 3시 를 맞추면 뚜레쥬르 제품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CJ푸드빌 제공

강렬한 태양…두피를 사수하라

기온이 높아지면 체온이 높아지고 얼굴에도 열이 발생해 기미와 노화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피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두피 역시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으로 인해 땀과 먼지에 뒤덮여 빨갛게 달아오르게 된다.

또 피지와 땀이 과다하게 분비돼 두피의 모공을 막고 영양 공급을 방해하면서 모근의 힘이 약해져 모발의 탈락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비듬, 탈모 등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 케어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의 '퓨어스마트 데오 쿨 미스트(사진 왼쪽)'는 비듬 및 지성 두피에 소취와 비듬 효과를 주는 두피-모발 전용 미스트다. 두피 냄새 제거에 탁월한 사이클로 덱스트린 성분과 천연유래 오일 성분이 두피 보습 및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또 피지 흡착 파우더가 함유돼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오후 시간에 뿌려 쭉 보발의 기름지지 않고 보송하게 유지해준다.

코리아나화장품에 최근 출시한 두피 전용 세럼 '꽃 다운모 두피 세럼 데오 쿨(오른쪽)'은 크리스탈 멘톨과 북극 빙산수가 두피 온도를 12.6℃ 낮춰서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킨다.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은 7가지 한방성분 재창연 '피모헌향탕' 성분이 함유돼 있어 두피의 전체적인 순환을 촉진시켜주며 탈모를 예방한다.

웰킨 두피·탈모센터 부설연구소에서 개발·론칭한 솔렙(Solep) 라인의 '타임리스 앰플'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2중 기능성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피부와 두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과민하고 붉은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피부 외피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정혜인기자 · hyjung@metroseoul.co.kr

"삼복 더위엔 역시 보양식이 최고"

특급호텔 초복 맞아 다양한 식단 선봬

가장 덥다는 삼복의 시작, 초복(7월 18일)이 다가왔다. 이 시기에는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각종 보양식을 먹으며 허한 몸을 다독여야 한다. 이에 특급호텔들이 내 몸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보양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원기 회복에 입맛까지 살려

먼저 서울 팔래스호텔은 스톤 플레이트에서 원기 회복에 으뜸인 '황실 봉로 삼계탕'과 '황실 삼계탕'을 선보인다. 여기에 매주 월요일에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버 시니어 프로모션'도 실시된다.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은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드세즌에서 건강한 한식 조리법으로 만든 보양 한식 4가지를 마련했다. ▲민어 매운탕 ▲대가구이와 감자수제비 매운탕 ▲[illegible]조면과 닭볶음 요리 ▲보양 삼계탕 등이며 더위에 잃은 입맛을 살려줄 매콤하면서 시큼한 맛이 특징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전복 인삼 삼계탕'과 함께 '게롤죽', '효종갱', '곤약 냉채' 등으로 구성된 '반상요리'를 준비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일식 레스토랑 순미에서는 '민어탕 정식'과 '이룹 별미 산마소바 및 물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그랜드 힐튼 서울의 일식당 미쯔모모는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민어&장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리츠칼튼 서울은 중식당 취홍에서 '산삼 배양근 불도장'과 '인삼 불도장'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운다.

또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강남은 백반석 훈제오리와 부추겉절이, 꽃게&대구요리 등이 제공되는 '리프레슈먼트 프로모션'을,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핫 섬머 푸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롯데호텔서울의 중식당 도림에서는 부족한 기력을 보충해주는 '고법 불도장'을 맛볼 수 있다.

/송지원기자 · hsoul38@

여름엔 '붉은 체리'가 도움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방지·피로회복 효과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신체에너지 대사를 활발히 해주고 떨어지는 기력을 보충하는 제철 과일 섭취가 좋다.

최근 여름철 인기과일로 떠오른 것이 붉은색 체리다. 체리의 색깔이 유독 붉은 이유는 체리 속에 함유된 안토시아닌(anthocyanin) 때문이다. 씨를 뺀 체리 100g에는 최대 300㎎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돼 있다.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폐물의 증가를 억제해 노화예방에 도움을 준다. 소염·진통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근육운동을 즐겨하는 스포츠 마니아들도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 즐겨 먹는다.

게다가 체리 한 컵(약 20개)의 칼로리는 90㎉로 매우 낮고 나트륨과 지방이 전혀 없는 대신 칼륨은 270g이나 함유되어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의 칼륨 섭취는 나트륨과 함께 작용해 체내의 수분 양과 산·알칼리 균형을 조절해준다.

모든 체리가 짙은 붉은 색깔을 가진 건 아니다. 체리는 그 종류만 해도 1000여 종이 넘는다. 그 중 과실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무르익었을 때 검붉은 빛이 나는 최적화된 재배 품종이 미국 북서부 체리인 빙(Bing)체리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빙체리는 7월과 8월 딱 두 달간만 맛볼 수 있어 제대로 된 여름과일인 셈이다. 올해는 산지의 작황이 좋아 유통량이 늘고 가격도 작년보다는 저렴해졌다.

/정은실기자

감초의 정석 회심의 한 수

배우 **김인권**

영화 '신의 한 수'서 꽁수 캐릭터로 감초 역할
짐 캐리·잭 블랙·아담 샌들러 보며 영감 얻어

인터뷰 내내 배우 김인권(36)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그가 출연한 영화 '신의 한 수'가 올 상반기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을 돌파한데 이어 개봉 2주차에 3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범구 감독과 '퀵'(2011)에 이어 '신의 한 수'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 그는 이번 영화가 회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유지현기자 srujlsm@metroseoul.co.kr 사진/

◆ 코믹 전문 배우? 천만배우!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여러 개가 있다. 조연 전문 배우, 코믹 연기의 대가, 그리고 천만배우. 누구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관객 동원 1000만을 그는 '해운대'(2009),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을 통해 이미 이뤘다. 그는 '천만배우'라는 별명에 "내가 조연할 때만"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신의 한 수'에서 제가 맡은 꽁수는 생계형 바둑 고수예요. 따지자면 닮았죠. 제가 생계형 배우 생활을 10년 정도 했어요. 가족들이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도 늘어나니까(웃음) 먹고 살기 위해 연기를 하고, 바둑을 두는 점이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한다'는 그의 캐릭터엔 인생사 희로애락이 묻어난다.

"이번 작품에선 꽁수를 보고 관객들이 마음을 열고 영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또 제 역할이라 믿었고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한 번이라도 크게 웃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기도 했었죠. 하지만 조 감독님이랑은 이미 한 번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편하게 힘 빼고 자연스럽게 했어요."

조연으로 등장한 작품만 흥행하는 것에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 말한다.

"'신의 한 수'도 마찬가지였죠. 상대가 고수면 나는 하수, 진지하면 경박하게, 슬프면 낙천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요.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태석(정우성)이의 멋진 모습은 안 나오기도 하고요(웃음)."

◆ 꽁수 여러 캐릭터 묶는 본드

배우로서 작품에 강렬한 한 방을 남기길 바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며 손을 저었다.

"배우로서 자존심, 존재감 욕심 다 버리고 제 장점인 까불거리고 수다 잘 떠는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까불거리는 캐릭터는 많이 해왔지만 어설프게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조절을 하려고 했죠. 근데 감독님께서 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꽁수가 여러 캐릭터들을 한 데 묶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강렬한 느낌의 캐릭터들을 끈끈하게 붙이는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꽁수는 감초의 정석이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그가 늘 코믹 연기만 해온 것은 아니다. 데뷔작 '송어'(1999)에서 신인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 많은 작품에서 코믹 연기만 주로 맡아오는 것이 속상할 법도 하지만 "멋진 역할은 멋있게 태어나야만 하나"는 재치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이제까지 출연했던 영화들이 제 포트폴리오가 됐어요. 굳이 제 (진지한) 연기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감독님들이 먼저 찾아주세요. '숙명'(2008)에 출연하고 나선 제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 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악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절 피했어요. 그 땐 '아, 내가 그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비호감인가' 싶은 마음에 조금 속상했어요(웃음)."

관객들은 그에게서 즐거운 모습만을 보길 바라지만 그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배우다.

"할리우드의 짐 캐리, 잭 블랙, 아담 샌들러를 보면 제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연기를 해야할 지 떠올라요. 연기할 때 최고 약점은 얼굴과 키라고 생각해요(웃음). 이번 작품하면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성기 선배처럼 내공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물론 정우성 선배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쪽으론 눈도 안 돌릴 겁니다(웃음)."

걸스데이 '달링' 차트 올킬

에프엑스·씨스타·카라 등 걸그룹 경쟁 기선 제압

그룹 걸스데이(소진·유라·민아·혜리 사진)가 여름 걸 그룹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타이틀곡 '달링'이 국내 8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지켰다. 그룹 에프엑스가 지난 7일 발표한 3집 타이틀곡 '레드 라이트'로 순항 중인 가운데 이뤄낸 성과다.

'달링'은 여름 스페셜 앨범 '썸머 파티'의 타이틀곡이다. 프로듀서팀 이단옆차기의 작품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한 귀여운 상상을 재미있는 노랫말로 풀어냈다. 경쾌한 셔플리듬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평이다.

앨범에는 '달링'을 비롯해 '썸머 파티' '록햇미' '타이밍' 등 5곡이 수록됐다.

수록 곡 '록햇미'는 이단옆차기와 변조, 타스코의 합작품으로 그루브감있는 어쿠스틱 R&B스타일의 곡이다. '타이밍'도 밝고 경쾌한 여름 분위기를 내는 하우스 댄스곡이다.

걸스데이는 지난 13일 데뷔 4주년 기념 단독콘서트 '썸머 파티'를 열고 7개월 만에 여름 스페셜 앨범을 발표했다. 2000여명의 관객과 함께한 첫 단독콘서트의 공연 수익금 전액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돼 교직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태국 자일라이 소녀들의 교육 등록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걸 그룹 경쟁은 7~8월 계속 된다. 오는 21일에는 음원 강자인 씨스타가 새 미니앨범을 낸다. 지난해 '기브 잇 투 미' 이후 1년여 만에 발매하는 앨범이라 팬의 기대가 높다. 일본 K팝 한류의 대표 주자인 카라는 8월 중순 새 앨범을 발표한다. 강지영과 니콜이 탈퇴하고 새 멤버 허영지를 영입해 4인조로 처음 내는 신보여서 기대가 크다.

/정효진기자 econ@

소녀시대 일본 투어 피날레

3차례 55만 관객 동원…한국 걸그룹 중 최다

걸그룹 소녀시대(사진)가 도쿄 공연을 끝으로 세 번째 일본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녀시대는 지난 4월 26일 후쿠오카 공연을 시작으로 히로시마·고베·나고야·오사카·사이타마·도쿄 등에서 아레나 투어 '소녀시대 러브&피스 세 번째 일본 투어'를 개최하고 7개 도시 17회 공연에서 총 20만 명을 동원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세 번의 아레나 투어를 연 소녀시대는 총 51회 공연으로 누적 관객 수 5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걸그룹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다.

피날레를 장식한 도쿄 공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서 소녀시대는 '지' '아이 갓 어 보이' '미스터 미스터' '가십 걸스' '플라워 파워' 등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현지 팬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 히트 싱글 무대까지 약 3시간 동안 총 28곡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발매를 앞둔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에 수록된 발라드 신곡 '인디스트럭터블'도 최초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이에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장의 셀카를 공개했다. 무대에 올라서기 전의 사진과 그 이후로 보이는 사진에서 유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는 멘트와 함께 일본 투어의 마지막을 자축했다.

한편 소녀시대의 일본 앨범 '더 베스트'는 오는 23일 발매된다.

/권보람기자 you@metroseoul.co.kr

'아기병사' 박형식 '진짜 사나이' 하차

드라마·예능 촬영 병행 힘들어

'아기병사' 박형식(사진)이 MBC '진짜 사나이'에서 하차한다.

14일 스타제국은 "박형식이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에 주인공으로 합류하면서 드라마 스케줄 상 '진짜 사나이' 촬영 병행이 힘들게 됐다"며 "이번 훈련을 마지막으로 '진짜 사나이'에서 하차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율을 최대한 해봤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박형식이 유격훈련으로 '진짜 사나이'에 처음 합류하게 됐는데 유격으로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진짜 사나이'에 합류하며 '아기병사'로 큰 사랑을 받은 박형식은 현재 '가족끼리 왜이래' 촬영에 한창이다. /김승환기자

레인보우 김지숙 노을 조현영 과감한 노출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김지숙·노을·조현영이 과감한 노출을 했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15일 발행되는 '맥심'(MAXIM) 코리아 8월호에 참여한 김지숙·노을·조현영의 흑백 화보 최초 컷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고혹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노을과 김지숙은 재킷 속 보일 듯 말 듯한 과감한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김민준기자

ZORRO
THE MUSICAL
2014.08.27 ~ 10.26 충무아트홀 대극장
1차 티켓오픈 : 7월 22일
김봉환 이희정 서영주 이정열 조순창 김우형 휘성 박성환 양요섭 Key 서지영 소냐 안시하 김여진 조아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어수선은 어수선해서 어수선?

실명·성격·유명인…사연 있는 작명으로 색다른 재미

드라마 속 심상치 않은 캐릭터 이름이 의외의 재미를 주고 있다.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거나 특정 연예인 이름을 차용해 반전 매력을 보인다.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 인피니트의 멤버 남우현과 이성열은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에서 각각 신우현과 황성열로 출연한다. 성만 다를 뿐 실제 이름과 동일하다.

성준해 PD는 14일 "천송해지기 위해서다"며 "우현과 성열은 인피니트로는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에겐 개별적으로도, 연기자로도 새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루듀 같은 이름을 생각했었다"며 "캐릭터와 작품은 시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인물의 성격을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 남우현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고아라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김민식

배우 고아라는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강남경찰서 신입 경찰인 어수선 역을 맡았다. 어수선은 이름처럼 어수선할 정도다. 표정도 다양하고 말과 행동이 빨라 정신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긍정적인 인물이다.

극 초반 동료인 은대구(이승기)가 마음을 열지 않자 적극적으로 신선한 점을 말하며 그를 설득했다. 네 명의 신입 경찰이 협동해 매회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명 연예인 이름으로 출연하는 도장은 적은 배역도 있다.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강동희(옥택연)의 쌍둥이 아들 이름은 강동원(최권수)이다. 배우 강동원을 연상하게 하는 이 캐릭터는 단순히 강력 작안 돌림자를 적용해 만들었다. 그러나 최권수의 준훈한 외모가 배우 강동원에 버금가 누나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지만 천진한 아이의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 현빈과 상반된 외모로 웃음을 유발하는 또 다른 현빈이 있다. 정만식은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서 강현빈으로 출연 중이다.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소탈하고 정직한 치과 의사다. '기분 좋은 날' 측 한 관계자는 "정만식과 배우 현빈의 외모가 상반된다"며 "같은 이름, 반전 외모로 웃음을 주고 있다"고 이름에 얽힌 뒷이야기를 밝혔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박해진, 디자이너로 패션쇼

중국 브랜드 '브이모던' 마크장과 함께

배우 박해진(사진)이 중국 브랜드 '브이모던'의 디자이너로서 첫 패션쇼 무대를 연다.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 1W에리어트 호텔에서 50여 명의 모델 배우들과 패션쇼에 선다.

'브이모던'은 박해진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중국 패션 거장 마크장과 론칭한 브랜드다. 3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

이번 패션쇼엔 마크장을 비롯해 디자이너 메인와 고군서 감독, MC 이욱, 가수 유곤신·진화군·구내붕·좌기박, 배우 산잘소녀·전경당, 화장비비 등이 참석한다.

박해진은 오후 1시부터 귀빈 접대와 언론행사, 본 쇼 무대까지 행사 전반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소속사 후배인 감우를 '브이모던'의 모델로 추천한 그는 쇼를 앞두고 강우의 워킹과 의상을 꼼꼼히 살폈다는 후문이다.

박해진은 이달 8일 종영한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 엘리트 의사 한재준을 연기했다. 오는 10월 첫 방송될 OCN 오리지널 시리즈 '나쁜 녀석들'을 차기작으로 선택하며 인기 행진을 예고했다. 작품에서 그는 천재 사이코패스 이정문 역을 맡았다.

/전효진기자

강소라 '미생'에 캐스팅

배우 강소라(사진)가 tvN 새 금토드라마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이하 '미생')에 출연한다.

윤태호 작가의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미생'은 바둑이 인생 전부였던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인공 장그래는 바둑을 잃고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바둑으로부터 얻은 통찰임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소라는 안영이 역을 연기할 예정이다. 안영이는 다른 대기업은 다니다 무역상사를 지망해 들어와 실무에 조기 투입되는 유능한 신입사원이다.

/김지민기자 kimjkim@

류승룡 사극 흥행 불패 쏜다

'활' '광해' 이어 '명량' 왜군 장수로 카리스마 발산

'최종병기 활'과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사극 흥행 기록을 세웠던 배우 류승룡이 신작 '명량'으로 또 한 번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중 하나인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최종병기 활'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의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류승룡은 2011년 김한민 감독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청나라 정예부대 수장 쥬신타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도 소수의 인원만이 사용하고 있는 만주어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은 물론 변발까지 감행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류승룡은 2012년 전국 1231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넘치는 관단력과 침착함을 지닌 전략가 허균 역을 맡아 지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흥행 배우로 거듭났다.

김한민 감독과 다시 한 번 조우한 '명량'에서 류승룡은 잔혹함으로 왜군을 이끄는 용병 장수 구루지마 역을 맡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냉혹한 왜군 용병 장수 캐릭터로 돌아온 류승룡은 영화 속 일본어 대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류승룡은 "점점 더 무궁무진한 소재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항상 새로운 캐릭터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행복이다. 이번에 맡은 구루지마 캐릭터도 왜군 장수지만 정말 냉혹하고 빈틈없는 인물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명량'은 전라도 광양에 초대형 해전 세트를 제작하고 실제 바다 위에서 촬영을 감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전쟁의 볼거리와 액션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았다. 류승룡 외에도 최민식·조진웅·김명곤·진구·이정현 등이 출연하는 '명량'은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전차군단' 독일 세계 축구 '호령'

통산 4회 우승 전성기 활짝…힘·높이에 섬세함 더해

독일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전차군단 시대를 열었다.

독일은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8분에 터진 마리오 괴체의 결승골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에 1-0 승리를 거뒀다. 통산 네 번째 월드컵 우승(1954·1974·1990·2014년)이자 독일 통일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또 미주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한 유럽 국가로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그동안 브라질과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에 밀려 2위에 머물렀던 독일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당당히 세계 축구 1위에 올라섰다. 통산 5회 우승의 브라질에 바짝 다가선 것은 물론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7-1로 처참히 무너뜨렸다. 유럽에서도 통산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승 진출 횟수는 통산 8회로 브라질(7회)을 제쳤다. 본선 통산 득점 역시 224골로 브라질(221골)에 앞섰다. 또 본선 통산 100경기를 달성해 세계 최초로 '센추리클럽'의 시대를 열었다.

전차군단의 오랜 이미지답게 투박한 힘에 의존하는 축구를 해온 독일은 이번 대회에서는 스페인식 '티키타카'를 가미해 세계 최강의 전력을 다졌다. 요아힘 뢰브 독일 대표팀 감독은 힘, 높이, 체력을 앞세운 선굵은 축구의 장점은 살리면서 정진 약남, 속도를 강조한 빠른 역습, 높은 점유율과 섬세한 패싱을 가미했다.

독일 선수들이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은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 대표팀은 23명 중 17명이 분데스리가 출신으로 계획적 탁월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강 팀인 바이에른 뮌헨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사령탑으로 맞았다. 과르디올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를 이끌며 티키타카(짧은 패스)의 원조로 불리는 명감독이다. 전술은 독일 대표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 상금·보너스 최소 450억원

세계 최강에 오른 기쁨에는 엄청난 상금도 뒤따랐다. 독일은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4경기를 합쳐 7경기 평균 50억9000만원 총 356억3000만원(3400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준우승을 한 아르헨티나는 254억5000만원(2500만 달러)을 가져간다.

우승 상금뿐 아니라 독일은 이번 대회 준비금으로 150만 달러(약 15억3000만원)를 미리 받아 수입은 3550만 달러(약 361억5000만원)로 늘어난다. 여기에 독일축구협회는 결승전에 앞서 선수들에게 우승 포상금으로 30만 유로(약 4억원)를 약속한 바 있다. 선수 23명의 포상금 합은 약 92억원이다.

◆ 뉴 전차군단 이끌 괴체

결승골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 마지막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힌 괴체는 뉴 전차군단을 이끌 신성으로 우뚝 섰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췄으면서도 '2%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운 '인생 최고의 골'이었다. 9살 때부터 도르트문트 유소년팀에서 성장, 2군을 거쳐 2009년부터 도르트문트 성인팀에서 뛰며 '전차 군단'의 미래를 이끌 선수로 기대를 모았다.

그를 중심으로 대표팀의 공격진을 짰지만 컨디션 난조가 겹치며 대회 중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승에서 후반 43분 득규 조커로 교체 투입되면서 자신의 진가를 확인시켰다. 괴체의 결승골은 독일 유소년 시스템에 기반을 둔 '뉴 전차 군단'의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유순호기자 sato@metroseoul.co.kr

'골든볼'에도 고개 떨군 메시

리오넬 메시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우수선수로 선정됐지만 끝내 침울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 진영을 위축시키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아르헨티나를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경쟁자들을 제치고 '골든볼'을 차지했다. 그러나 메시는 시상식 후 "골든볼을 받은 것은 소용없다. 오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만 생각했다. 이렇게 패배하게 돼 아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시상대에 오른 우승팀 독일의 골키퍼이자 골든 글로브 수상자인 마누엘 노이어와 대조되는 표정이었다.

메시는 "이렇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돼 슬프다. 우리는 이보다 나은 결과를 낼 자격이 있었다"며 "우리는 노력했으나 앞서 치른 다른 경기에서만큼 운이 따르지 않았다. 연장전 마지막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골든볼을 차지하고도 침울한 표정을 짓는 속 오른 메시 /AP 연합뉴스

메시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컵과 득점왕 타이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4년 연속 수상 등 프로 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모두 맛봤다. 그러나 가장 바라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 획득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유순호기자

'샛별' 로드리게스 '골든 부트'

최고 스타 등극 노이어는 '골든 글로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더 큰 명광을 얻은 신성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빛냈다.

골든 부트(득점왕)를 차지한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23·모나코·사진)는 이번 대회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다. 8강까지 5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했다. 8강 탈락 팀에서 득점왕이 나온 것은 1986 멕시코 대회의 게리 리네커(잉글랜드) 이후 28년 만이다.

모나코에서 겨우 한 시즌만을 보냈지만 벌써 스페인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최고 명문 구단들의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다. 지난해 포르투에서 모나코로 옮길 당시 로드리게스의 이적료는 4500만 유로(약 617억원)로 지나치게 고평가된 액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보다 몇 배나 많은 이적료가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폴 포그바(21·유벤투스)는 차세대 세계 최고 중앙 미드필더의 가능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매 경기 차분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이며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 사령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신인상에 해당하는 "현대 영플레이어 어워드" 수상자로 포그바를 선정했다.

최고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골든 글러브'는 우승팀 독일의 마누엘 노이어(28·바이에른 뮌헨)에게 돌아갔지만 유난히 많은 스타 골키퍼가 이번 대회에 등장했다.

브라질, 네덜란드 등의 파상공세를 막아낸 멕시코의 기예르모 오초아(29·무적)는 최고 20개 이상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코스타리카의 골문을 지킨 케일러 나바스(레반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대형 클럽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유순호기자

류현진 전반기 10승 위업

마지막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 한국인 투수 메이저리그 최단 기록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시즌 10승 달성과 함께 전반기를 마쳤다.

류현진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무사사구 탈삼진 10개를 잡아내며 시즌 10승(5패)을 따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종전 3.65에서 3.44로 낮췄다.

류현진은 지난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2⅓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으로 부진했었다. 당시 류현진의 평균 직구 구속은 91~92마일을 맴돌았다. 구속이 떨어지니 결정구 체인지업도 '강타선' 디트로이트 타자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다 이날 류현진은 체인지업의 부진을 씻고자 컷 패스트볼성 슬라이더의 비율을 높였다.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1회에만 88마일의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2개를 이끌었다. 이어 2회에도 카에론 예이반을 88마일의 몸쪽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류현진의 투구수는 92개, 그 중 스트라이크는 62개였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다보니 자연스레 삼진도 10개를 잡아냈다. 삼진 10개 중 슬라이더만 5개였다. 또한 최고 구속은 95마일(약 152km)까지 뿌렸다.

빠른 구속과 제구력에 자신감을 되찾은 류현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종을 선보였다.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로 샌디에이고 타선을 봉쇄했다. 체인지업은 5회까지 간간히 던질 정도였고 포심과 투심, 커브의 비율이 높았다.

구종의 패턴을 바꾼 류현진의 영리한 두뇌가 결국 시즌 10승과 함께 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다저스에서 잭 그레인키(11승 5패)와 클레이턴 커쇼(11승 2패)에 이어 세 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21번째 등판이었던 8월 3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시즌 10승째를 세운 류현진은 한국인 투수의 메이저리그 최단 경기 시즌 10승 달성 기록까지 새로 썼다.

/김성현기자 ysar@metroseoul.co.kr

프로 야구 재미있었나요?

이루만난 관로 [illegible] 역대급 타고투저 현상으로 타자는 날고 투수들은 기었다. 12일 현재 평균타율은 0.291, 평균자책점은 5.28에 이른다. 수십개의 안타가 난무하고 다득점 경기가 너무 많아 경기시간도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오심 때문에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어이없는 오심이 속출했다. 심판들의 자질은 물론 자체의 재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일이 터졌다. 한 심판은 관중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비디오판독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번갯불에 콩 볶는 듯 했다.

LG 김기태 감독은 4월 중에 스스로 지휘봉을 놓고 물러났다. 작년 성적을 잇지 못하고 꼴찌로 추락하자 스트레스가 컸다. 시즌 초반인데도 전쟁터를 떠난 장수의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 양상문 감독이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LG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순위경쟁도 재미 없었다. 삼성이 독주를 하면서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토종선수들의 씨앗자는 견고했고 외국인투수 밴덴헐크와 타자 나바로도 최강이었다. 넥센과 NC가 삼성을 막지 못했다. 삼성을 견제할 것으로 주목받은 두산과 SK가 4강권에서 밀려난 것도 의외였다.

KIA와 한화는 올해도 4강 진입이 어려워 보인다. 김응용 감독이 이끄는 한화는 FA 시장에서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동렬 감독의 KIA도 마운드 약점을 딛지 못하고 5할 승률에 실패했다.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두 감독의 이미지는 구겨졌다. 잊고 싶은 전반기였다.

/OSEN 야구전문기자

멈춰선 '추추 트레인'

추신수 전반기 초라한 성적으로 마감

올해 텍사스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은 톱타자 추신수(32·사진)가 타격감을 찾지 못한 채 전반기를 마감했다.

추신수는 14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져 벤치를 지키다가 6-8로 뒤진 7회 대타로 출전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에도 좌익수 뜬공에 그쳐 2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끝낸 추신수는 전반기 9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2(322타수 78안타), 홈런 9개, 33타점, 출루율 0.362를 기록했다. 텍사스는 8연패에 빠져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가장 낮은 승률(0.400·38승 57패)로 반환점을 돌았다.

추신수는 시즌 초반 베테랑의 노련미로 4월에만 타율 0.319, 출루율 0.446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5월 6일 타율 0.370, 출루율 0.500으로 아메리칸리그 두 부문 1위에 오르며 절정을 찍었다.

그러나 4월 2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주루 중 왼쪽 발목을 다친 뒤 통증이 본격 도진 5월 중순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졌다. 안타 수가 줄면서 5월 말 타율 0.289, 출루율 0.412로 하락했다. 안타 수(17개)보다 삼진 수(26개)가 더 많은 6월은 악몽과도 같았다.

추신수는 "나나 팀에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 상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참들이 잘 해보자고 선수단 미팅을 몇 차례 열기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타격과 마운드의 불균형이 결국 저조한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추신수는 14일부터 나흘간 발목 치료에 집중한 뒤 18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방문경기부터 후반기 명예회복을 노린다.

/정성훈기자

박인비 역전패 그랜드슬램 무산

박인비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첫 번째 티샷을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리티시여자오픈 4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아쉽게 놓쳤다.

박인비는 13일 영국 랭커셔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파72·6458야드)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를 3개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와 보기 6개를 범하며 5타를 잃었다. 합계 1오버파 289타를 적어낸 박인비는 4위에 그쳤고 미국의 모 마틴(1언더파 287타)에게 우승을 내줬다.

2008년 US여자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박인비는 지난해에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등 3개 메이저 타이틀을 휩쓸었다. 브리티시여자오픈 트로피만을 얻으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이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3개로 1타를 잃었지만 다른 선수들도 흔들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10번홀(파4)에서 티샷이 러프에 빠지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낸 박인비는 이후 11번홀(파4) 보기, 13번홀(파4) 버디, 14번홀(파3) 보기를 써내면서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로는 지은희(28)가 공동 5위(3오버파 291타), 안선주(27)가 공동 9위(4오버파 292타)로 톱10 안에 들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